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LONDON BELONGS TO ME

가제 : 나의 마음 속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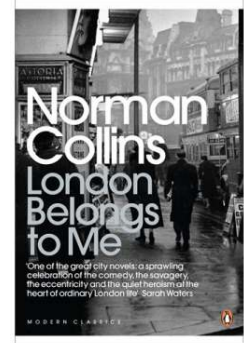
저자 : Norman Collins

출판사: Penguin Classics

발행일: 2009년 3월 2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 **작은 하숙집에 모여 사는 다양한 세입자들, 2차 세계대전 시기 평범한 런던시민들의 삶**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일보직전, 전운이 감돌던 1938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런던을 무대로 어느 하숙집에 모여 사는 다양한 하층민들의 시선을 통해 당시 런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런던 시민 모두가 전쟁이 임박했음을 체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시의 삶은 계속됐다. 사람들은 어느 때처럼 일터로 나가고, 술을 마시고, 사랑을 하고, 싸우기도 하며 또 하루의 생활을 이어갔다.

런던 남부 케팅턴의 덜시머 가에 있는 하숙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추를 목 끝까지 단정하게 채운 조서 씨는 막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선물로 받은 시계를 들고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체구에 머리가 희끗한 그는 42년이나 견뎌왔던 기나긴 노동의 세월에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머릿속에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흥분함과 상실감이 교차했고, 착한 아내가 곁에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 이 하숙집에는 통조림 음식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특이한 남자 푸디 씨도 살고 있다. 또 다른 세입자 코니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다 지금은 나이트클럽 카운터에서 일하며 친구 하나 없이 절망한 채 살아간다. 한 눈에 봐도 불량한 사람으로 보이는 젊은이 퍼시도 하숙집에 살고 있다. 버터 접시에도 개의치 않고 담배를 비벼 끄는 버릇 없는 이 청년은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지만, 나쁜 손버릇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차를 훔치고 만다. 하지만 사태는 생각보다 점점 심각해지고, 그는 이 일로 훨씬 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만다.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인물처럼 심각한 범죄도 아무 감정 없이 저지르고 마는 그의 모습은 전쟁 직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대다수 영국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나치의 행태처럼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사악함이 극에 달하던 이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시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하숙집에 사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집주인 비자드 부인이다. 고귀한 계층이라도 되는 양 우월감에 젖어 사는 이 미망인은 하층민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세입자들을 만나 뺏속 깊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태도가 늘 갈팡질팡한다. 그녀는 자칭 강신론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하숙집에 새로 들어온 스퀘일 씨에게 금세 반해버리지만, 그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1945년 처음 발표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처럼 각양각색 인물들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조명한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대신 그 인물들의 눈으로 점점 무기력하고 피폐해져 가는 런던의 모습과 나치 제국에 맞서면서 불독처럼 끝까지 희망을 물고 늘어지며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런던 곳곳을 누비던 전차와 트램, 위기 상황에도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잃지 않았던 나이트클럽과 차 보관 창고의 모습 등 이 시기 런던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소설 곳곳에 등장한다.

### <저자 소개>

노먼 콜린스(Norman Collins)는 1982년 작고하기 전까지 《The Governor's Lady》(1968), 《The Husband's Story》(1978) 등 총 16편의 소설과 두 편의 연극을 집필한 작가로 활동했다. BBC 라디오4에 'Woman's Hour'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디펜던트 TV(ITV) 네트워크 창설에도 주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목 : THE STATUS OF ALL THINGS

가제 : 상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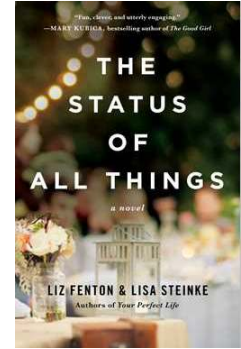
저자 : Liz Fenton, Lisa Steinke

출판사: Washington Square Press

발행일: 2015년 6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 페이스북에 내걸리는 삶에 목매는 여자, '상태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인생의 모든 면, 음식, 패션, 즐길 거리부터 가족, 대인관계, 자신의 이미지, 생활 방식까지 전부 '완벽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어떻게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 감탄할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현대인들. 작가 두 사람은 통쾌한 유머와 깊은 통찰력에 약간의 엉뚱함을 가미하여,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이들을 날카롭게 꼬집은 소설을 완성했다.

결혼을 앞둔 서른 다섯 케이트는 페이스북에 인생 전체를 걸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성이다. 무조건 완벽해 보이는 삶을 만드는데 열중하는 그녀는 어둡고 부정적인 글을 써 본 적이 언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케이트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은 늘 친구들이 '애 관찮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뿐이다. 승진한 이야기, 고급 레스토랑에 갔던 이야기 등 그녀의 글과 사진은 부러움을 살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거기에만 집중해서일까, 케이트는 약혼자인 맥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심지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결국 결혼식 바로 전날 저녁, 그것도 결혼식 리허설을 하면서 식사하던 도중에 맥스에게서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와 도저히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듣고 만 케이트. 게다가 맥스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케이트의 직장동료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코트니였다! 절망에 빠진 케이트는 대학 시절부터 늘 절친하게 지낸 두 친구 리암, 줄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울며불며 괴로워하던 와중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다. 결혼 축하 메시지가 가득한 화면을 본 케이트는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수정한다.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케이트는, 놀랍게도 전날 밤 자신이 바꾼 상태 메시지처럼 시간이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맥스도 아직까지 곁에 있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갖게 된 케이트. 과연 지금부터라도 맥스와 코트니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결혼과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포장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트와 통찰력으로 꼬집은 소설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에 쓴 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자, 케이트는 리암과 줄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두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고, 케이트는 그 특별한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소중한 이 두 친구의 비참한 삶도 바꿔줘야겠다고 결심한다.

오래 전에 결혼한 줄스는 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 꿈과 전혀 다르다. 남편과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걱정, 갈등만 이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결혼을 해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남편과의 관계는 시들해져 버렸고,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 무료한 생활을 견딜 수 없던 줄스는 바람이라도 피워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다. 리암의 삶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늘 주변 친구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리암은 케이트의 눈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이는 친구였다. 케이트는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놀라운 시간 여행의 비밀을 적극 이용하여, 이 두 사람과 오래 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이혼으로 얻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의 삶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일은 결코 케이트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맥스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칠수록 생각지도 못한 더 심각한 사태만 벌어지고 만다. 결국 케이트는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세상에서 현실 속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한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낱알이 파헤친 이 소설은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지, 그 비현실적인 ‘나’를 정말 ‘나’라고 볼 수 있는지 되묻는 소설이다.

#### <전작>

YOUR PERFECT LIFE (완벽한 삶) by Liz Fenton, Lisa Steinke (304페이지, 2014년 6월)

두 저자가 함께 집필한 데뷔작인 ‘완벽한 삶’은 학창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커리어 우먼 케이시와 가정주부인 레이첼이, 스무번 째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 몸이 바뀌어버린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케이시는 화려한 경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왜 혼자인지에 대한 이유와 마주하고, 레이첼은 자신이 임신한 이후 포기한 꿈을 마주하게 된다. 많은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 데뷔작은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친구와의 관계를 되찾아가는 따뜻하고 위트 있는 이야기를 담은 데뷔작이다.

#### <저자 소개>

리즈 펜튼(Liz Fenton)과 리사 슈타인케(Lisa Steinke)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다니며 25년 동안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리즈는 샌디에이고에서, 토크쇼 프로듀서 출신인 리사는 시카고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MOTHERS

가제 : 어머니들

저자 : Brit Bennett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 교회가 삶의 중심인 작은 흑인 사회, 특정 인종이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엄청난 영향

지난 해 12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는 백인 경찰관이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살해하며 엄청난 인종 갈등을 촉발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해묵은 흑백 갈등에 관한 에세이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던 저자가, 흑인 사회의 현실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을 데뷔작으로 완성했다. 캘리포니아 주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이, 젊은이들을 통해 ‘인종’이 흑인 사회에서 한 사람의 청소년과 청년기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 그려낸 소설이다.

이야기는 나디아 터너라는 소녀에 관한 소문에서 시작된다. 교회가 지역사회 중심인 작은 흑인 마을에서, 열일곱 살 나디아가 목사의 아들 루크와 연애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결국 시내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엄마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나디아는 평소 예쁜 아이로 소문이 자자했다. 윤기가 흐르는 피부, 비단결 같은 긴 머리, 갈색과 회색이 적절히 섞인 눈을 가진 소녀는 겁이 많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추려고 애쓰던 아이였다. 그러면서도 못 소녀들이 그럴듯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댄스 클럽에 다니는가 하면, 학교에 보드카를 물병에 담아 가지고 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다 루크를 만나 관계를 가지고, 이듬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가까워진 곳은 부둣가에서 해산물 요리를 파는 ‘팻 찰리’ 식당이었다. 즐거운 음악과 편안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 식당은 사실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오래된 생선 튀김과 감자 튀김을 찢어진 청바지를 걸친 십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날라다 주는 곳이었다. 나디아는 엄마가 비참하게 목숨을 끊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집에는 들어가기 싫었고, 방과 후면 무조건 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벗어나 밤 늦도록 돌아다니곤 했다.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 그런 곳으로 도망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책가방을 맨 채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고 해변을 거닐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어둠이 찾아 오면 소문에 등장한 그 댄스 클럽에 들어가 가짜 신분증인줄 알면서도 모른 척 속아주는 바텐더에게 콜라 섞은 럼을 건네 받아 구석 자리에서 훌쩍였다.

### 외로운 흑인 소녀와 목사의 아들, 소녀의 친구,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으로 흑인 사회의 단면

그러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두 달 후, ‘팻 찰리’ 식당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일하던 루크와 만난 것이다. 엄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아버지와 달리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던 나디아는, 누구라도 붙잡고 속에 꽂꽂 담아둔 혼자만의 고통을 분출하고 싶었지만 그럴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감정이 분출되지도 않았다. 그런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이 루크였다.

축구 선수였지만 큰 부상을 겪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꿈을 접고 웨이터로 일하던 루크와 마음을 털어 놓을 친구가 필요했던 나디아.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임신과 수술로 이어지고, 나디아는 그 사실을 비밀로 간직한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 오브리가 루크와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오브리와 나디아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삼각 관계가 형성된다. 급기야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식들이 지은 죄를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엄마들, 흑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그 역할을 짊어지기 싫은 젊은 세대의 갈등을 현실감 넘치는 인물들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삶의 중심이 놓인 마을 교회에는 흑인들만 다니지만 학교에 가면 여러 인종과 계급이 뒤섞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세대, 이 극명한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향한 가족, 사회의 기대를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우정을 통해 그대로 보여 준다.

#### <저자 소개>

브리트 베넷(Brit Bennett)은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재학 시절 ‘보콕/게랄드 소설상(Bocock/Guerard Fiction Prize)’과 ‘로버트 M. 골든 상(Robert M. Golden Award)’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퍼거슨 시 사태와 관련하여 쓴 에세이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읽으며 화제가 되었다. 위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PLEASE DO NOT DISTURB  
가제 : 방해하지 마시오  
저자 : Robert Glancy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16년 초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소설



**아프리카에 세워진 가상의 독재국가 브왈로,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개성만점 인물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세워진 작은 국가 브왈로. 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데뷔 소설 ‘Terms & Conditions’의 작가가 이 두 번째 소설에서는 지도에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가상의 독재 국가를 무대로 다양한 인종이 모인 이 나라의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타푸모 왕이 독재자로 군림하는 나라 브왈로에서 시민들은 텔레비전을 볼 수 없다. 나라에서 금지했기 때문이다. 발언의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타푸모 왕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은 오직 라디오만 들을 수 있다. 인터넷은 제한되어 있고, 검색엔진은 열리긴 하지만 무엇을 검색하든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온 나라의 언론매체는 왕이 소유하고 있다. ‘빅 데이’라고도 불리는 브왈로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축하객으로 초대 받은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속속 브왈로로 모여든다. 엄마, 아빠와 이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아홉 살 찰리는 아빠 스투어트가 매니저로 일하는 거대한 호텔 미라쥬 로비에 나와 있다. 성대한 기념 행사를 맞아 새로 페인트칠을 한 호텔에서 아빠와 컨시어지 에드는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며칠 전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유명인사 이야기만 해대는 통에 찰리도 로비에 들어서서 사람마다 누구 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기자인 선도 브왈로를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으로, 찰리는 그와 금세 친해진다. 농담도 잘하고 술을 좋아하는 선은 꼬마 찰리에게 덕터폰을 선물하고, 찰리는 아빠에게 자랑하러 호텔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BBC 월드 서비스’ 채널 같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흑인의 나라에서 자란 찰리에게 엄마 아빠의 고향인 영국은 늘 동화 속에 나오는 나라처럼 느껴졌다. 가끔 라디오에서 듣는 BBC 뉴스는 폭동 소식이며 세금 문제, 곳은 날씨 이야기가 태반이지만 그래도 왠지 어린 소녀에게 영국은 꿈 같은 나라였다.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 어른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서 숨죽인 채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고, 찰리도 조용히 무슨 소식이 나오나 들어보았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국제 사회는 아프리카 동부의 브왈로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브왈로 재무장관 패트릭 고야가 자취를 감춘 미심쩍은 상황에 따른 것으로...’

### 희망을 노래했지만 폐쇄국가가 되어버린 나라,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쿠데타

한편 같은 시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편 조세프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겨우 한숨 돌리며 병원 창문 밖으로 미라쥐 호텔을 바라보던 호프는 뽀얀 먼지가 가득한 공기 저 너머로 페인트 칠을 새로 한 호텔을 보며 행복했던 옛날을 떠올린다. 타푸모 왕이 브왈로를 처음 건립하고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춤추고 노래하던 시절, 상점이며 집집마다 타푸모 왕의 초상화를 걸던 때였다. 병을 앓던 타푸모의 간호사였던 호프는 당시 최연소 내각 장관으로 임명된 조세프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주로 해외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호텔 미라쥐에서 신혼의 첫 며칠을 보냈었다. 훌쩍 지나버린 세월, 너무나 달라진 삶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호프는 시들어버린 자신을 한탄하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빅 데이’에 대해 생각한다.

아홉 살짜리 영국인 소년과 독재자의 간호사, 부패한 정부 관리와 술에 절어 지내면서 아프리카를 무대로 걸작 소설을 쓰는데 몰두하는 아일랜드 기자, 그리고 브왈로를 찾아온 미국의 힙합스타, 비밀 경찰,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암살 지령을 받고 온 용병, 사창가 출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까지,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독립 기념일을 앞둔 브왈로에 모여들고, 대망의 기념일 당일,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가 시작된다. 브왈로와 시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비극적인 이야기에 코미디 요소를 절묘하게 혼합한 매력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로버트 글랜시(Robert Glancy)는 잠비아에서 태어나 말라위에서 자랐다. 열네 살에 에딘버그로 건너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2014년 발표한 데뷔소설 《Terms & Conditions》는 큰 호평을 받았다.



## NON-FICTION

제목 : THE STARS BETWEEN THE SUN AND THE MOON

가제 : 해와 달, 그 사이에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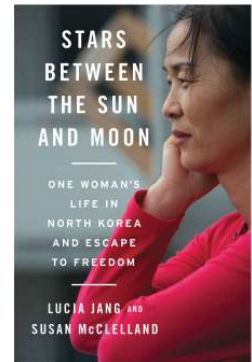
저자 : Lucia Jang, Susan McClelland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5년 10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굶주림에서 가족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 도망쳐야 했던 북한 여성의 절박한 삶, 위태로웠던 탈출기**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루시아 장.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겨우 살아남아 몇 차례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야 했던 그녀가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했던 여정은 한 권의 책에 생생하게 담았다. 캐나다 북한협회가 확인한 그녀의 생생한 실화는 전 세계 전쟁의 참상을 다양한 형태로 알리는데 주력해 온 캐나다 저널리스트 수전 맥클레랜드의 도움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1970년대에 북한에서 태어난 루시아 장은 전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고, 가족들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쌀과 텃밭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에만 의존하며 근근이 살아야 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다. 그래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루시아는 여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 액자를 말끔히 닦아냈고, 둘은 함께 사진을 향해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외쳤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 폐쇄된 국가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아들 김정일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북한에 혼돈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로부터 10년, 북한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고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루시아 장은 그 절망적인 시기에 결혼을 했다. 술을 입에 달고 살고 폭력도 서슴지 않던 남편은 그녀가 가져온 결혼 지참금을 다 탕진하자 그녀에게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니, 급기야 핏덩이 같은 아들을 고작 북한 돈 300원과 비누 두 개에 어느 부부에게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만다. 루시아는 어떻게든 아기를 되찾으려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던 절망의 삶, 물러서는 대신 사랑과 희망을 안고 국경을 건너다**

아이를 잃는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먹고 살 식량은 점점 더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굶주림으로 전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루시아는, 친정 부모님과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생활 전선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위험한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한 중국인 남성과 불법 결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북한을 오가야 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루시아는 북한 당국에 여러 번 발각되어 수용소에 보내졌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또 다시 돈을 벌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째 아이 태범이를 힘들게 출산했지만,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오갈 곳 없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아이 아버지인 중국인 남성도, 그 집 가족도 모두 루시아와 태범이에게 등을 돌렸고 아이가 태어난 북한에서는 아이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두 번 다시 남의 손에 아이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를 악문 루시아는 결국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하기로 마음 먹는다. 총알 세례가 빗발치는 가운데 중국 국경을 넘어 탈출을 감행한 루시아는 아기를 비닐봉지에 숨긴 채, 자유와 생존을 찾아 차디찬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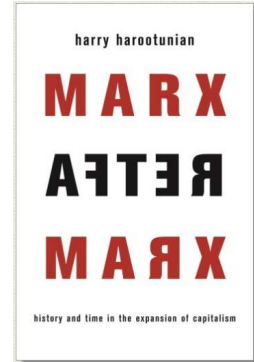
루시아의 이야기 속에는 폐쇄된 정치체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과 자식을 잃고, 굶주리고, 수용소를 드나들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루시아 장을 비롯한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둡고 절망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 가족들을 지켜내야겠다는 의지로 믿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낸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속에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는 힘이 숨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 <저자 소개>

루시아 장(Lucia Jang)은 북한을 탈출해 현재 토론토에서 살고 있다.

수전 맥클레랜드(Susan McClelland)는 캐나다에서 기자로 활동 중이며 2005년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미디어 상(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MARX AFTER MARX  
가제 :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저자 : Harry Harootunian  
출판사: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10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인문



### 마르크스주의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자리한 과정, 그 다양성이 만든 새로운 세계사

마르크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개념은 처음 세상에 등장한 후 점차 전 세계로 뻗어 나가 세계 시장에 포괄되었다. 유럽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는 이 독특한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파 되었을까? 마르크스로 시작된 세계 시장의 변화는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사항이 아닌 이유는, 과거 제 3세계로 불리던 각 지역들마다 자국 내부의 상황과 역사적 환경에 따라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형태와 과정에 차이가 있었고, 이 변화가 모여 세계사의 한 부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루카치 죄르지는 역사적 물질주의가 자본주의의 진정한 자기인식이라는 견해와 함께, 이 인식을 토대로 세계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에트 연방은 '서구 마르크스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를 루카치 죄르지가 대표작 《역사와 계급인식》에서 이야기한 마르크스주의와 구분하고자 했다. 즉 소비에트는 사람들의 초점이 노동과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형태가 가지는 힘으로 바뀌고, 이것이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형성했다고 밝힌 루카치 죄르지의 견해와 선을 그은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한 때 마르크스주의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지배적인 인식 또는 상식처럼 자리하여 마르크스 자본주의가 각 지역의 문화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고 심지어 자본주의의 자기표현에 연루되는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주장과 자본주의의 최종 완성이라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자본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초기 사상가들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유럽과 미국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서구지역의 문화적 변동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각 지역의 환경과 시대, 문화가 어떻게 한데 얽혀서 그 지역 내에서 자본의 생산 시스템을 재형성하게 되었는지 폭넓은 관점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영국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양상을 비롯해 20세기 들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한편 레닌,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 핵심 사상가의 텍스트를 소개한다.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내포된 문화적 선입견을 벗겨내고 세계사 전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의미를 재조명한 획기적인 책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탈지역화

1. 마르크스, 시대, 역사
2. 동쪽으로 전파된 마르크스주의
3. ‘글로벌 사우스(\*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향하여
4. 후기 발달과 ‘봉건제도 잔재의 존속’에 관한 이론  
: 왕 야난,(Wang Yanan), 야마다 모리타로(Yamada Moritaro), 우노 코조(Uno Kōzō)
5. 식민주의 / 포스트식민주의
6. 마치면서: 세계사와 실세계

<저자 소개>

해리 하루투니언(Harry Harootunian)은 콜롬비아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History's Disquiet: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the Everyday Life》 등이 있다.

제목 : AHA MOMENTS IN TALENT MANAGEMENT

가제 : 재능 경영? '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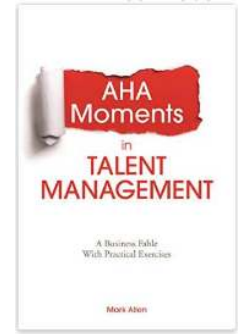
저자 : Mark Allen

출판사: American Society for Talent Development Press

발행일: 2014년 8월 7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열 세가지 경영 원칙**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들은 대부분 '사람이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회사 정책이 되려 인적 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구성원의 재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원칙 13가지를 제시하고, 카리스마와 열정 넘치는 인사부장이 일하는 어느 가상의 회사를 예로 들며 이 원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단체와 기업에서 변화를 이끌고 싶지만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에 가로막힌 사람들과 대담을 나누며 영감을 얻어 집필하게 된 책으로서, 저자는 이 책에서 수많은 기업들에 만연한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영 방식을 하나하나 꼬집는다. 더불어 한 챕터가 마무리될 때마다 "평가"와 "반성" 두 가지 질문 모음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업과 단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대입해볼 수 있다. 평가 질문들은 단체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인적 활용의 예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환경에 비교해 점수를 매겨 현재 회사의 재능 관리 실태를 냉정하게 직접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성 질문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질문들로서 재능 관리 원칙을 토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재능 경영 원칙을 통해 조직을 재편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열정과 영감을 불어 넣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목차>

1. 재능 경영 원칙 첫 번째  
: 바라는 일이 매일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담아서 직원을 대하고 행동하라.
2. 재능 경영 원칙 두 번째  
: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재능 있는 직원의 조직적인 관리
3. 재능 경영 원칙 세 번째  
: 회사의 최우선 과제 - 최고의 재능을 지닌 인재 영입
4. 재능 경영 원칙 네 번째

: 승진 기준은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 훌륭한 성과는 포상하되 승진이 지나간 성과의 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재능 경영 원칙 다섯 번째

: 원하는 행동과 결과가 있다면 먼저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라.

6. 재능 경영 원칙 여섯 번째

: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반드시 명확한 평가 기준을 함께 제시하라.

7. 재능 경영 원칙 일곱 번째

: 훈련, 교육, 능력개발 비용을 아끼지 말라.

8. 재능 경영 원칙 여덟 번째

: 훈련과 능력개발로 얻고 싶은 구체적인 성과를 먼저 정해서 후회 없는 투자로 만들어라.

9. 재능 경영 원칙 아홉 번째

: 혁신을 꺼리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라.

10. 재능 경영 원칙 열 번째

: 직원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회사 최고의 경쟁력으로 활용하라.

11. 재능 경영 원칙 열한 번째

: 직원들의 연령대 격차가 큰 것은 절대 문제점이 아니다. 값진 자산이 되도록 활용하라.

12. 재능 경영 원칙 열두 번째

: 변화를 두려워하는 특성을 받아들이고, 대화와 인내로 추진하라.

13. 재능 경영 원칙 열세 번째

: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저자 소개>

마크 알렌(Mark Allen)은 재능 관리 분야에서 교육자, 강연자, 컨설턴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The Next Generation of Corporate Universities》, 《The Corporate University Handbook》 등의 저서를 발표하고 학술지에도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현재 Pepperdine University의 경영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 Kiely Group >의 차장이자 < Human Capital Institute>의 교수로 <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이나 Vatel University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제목 : STEP OUT OF YOUR STORY

가제 : 내 삶의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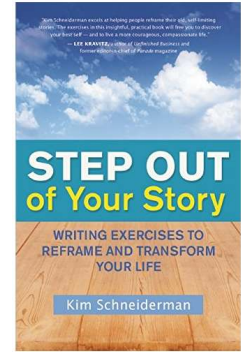
저자 : Kim Schneiderman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5년 6월 9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내가 주인공인 내 삶의 이야기,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기분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 사람들과의 관계와 업무, 머리 아팠던 일과 즐거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루하루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스탠포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삶 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 삶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인가? 이야기가 꼬이는 지점은 어디고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삶의 이야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이 책에서 각자의 욕구와 목표를 향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의 힘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당사자가 이야기하려는 일 자체가 해결되지도, 해소되지도 못한 채 정체되어 있음을 대변한다. 저자는 인물 개발과 삶을 긍정하는,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찾게끔 도와준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빠져 나와 외부인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적극적인 화자가 되어 이야기의 큰 틀을 파악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행동, 관계를 이해하여 행복한 결말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글쓰기 기술들은 작가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신선한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삶은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최악의 해설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외의 많은 전제들을 토대로 독자들을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글쓰기로 안내해주는 책이다.

#### <목차>

1장. 삶의 이야기에는 적당한 렌즈가 필요하다

- 2장. 인식 전환
- 3장. 내 이야기에서 스타는 누구?
- 4장. 주어진 역할들
- 5장. 대본은 누가 쓰고 있나?
- 6장. 장을 나누고 소제목을 달아보자
- 7장. 비운의 운명이나 활짝 핀 인생이나 - 방향 전환의 중요성
- 8장. 갈등 - 등장인물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 한 방
- 9장. 행간 읽기 - 등장인물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 10장. 대화로 내용을 깊숙이 파헤치고 캐릭터에 변화 주는 법
- 11장. 등장인물 뚫고 다른 자원 활용하기
- 12장. 클라이맥스 - 전세가 바뀌는 순간
- 13장. 하강부 - 내게 필요한 결말을 향해
- 14장. 해결 단계 - 긍정적인 대사 찾기
- 15장. 에필로그 - 다음 이야기는?
- 16장. 나의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나자
- 17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 <저자 소개>

김 슈나이더만(Kin Schneiderman)은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뉴욕 대학교 등에서 교수나 강연자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제목 : EXISTENTIALISM AND ROMANTIC LOVE

가제 : 실존 철학과 낭만적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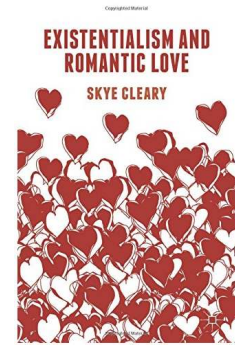
저자 : Skye Cleary

출판사: Palgrave Macmillan

발행일: 2015년 3월 17일

분량 : 220 페이지

장르 : 철학



### 다섯 명의 실존 철학자들이 전하는, 선입견을 부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법

‘낭만적인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아주 먼 경우가 많다.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한다면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단정 짓는 그 생각들이 사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도 빈번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실존 철학을 통해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추상적인 생각을 인간의 경험과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딜레마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실존 철학은 사랑의 문제에도 훌륭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왜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 좌절과 실망감을 극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다섯 명의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들이 제시한 생각들을 토대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잣대로 스스로가 정해놓은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열정에만 사로잡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진심이 담긴 노력을 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키우는 시작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되었다. 대형중매 업체들,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 로맨스 소설의 폭발적인 인기, 연인과의 관계에 관한 책들, 관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들까지, 연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방법은 늘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모두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잔뜩 부푼 기대를 한 채 살아가고, 행복, 조화, 이해, 애정의 완벽한 이미지가 고착되어 정말 나의 연인이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처럼 느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의 이상과 연인들이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타협하고 희생하는 현실 사이의 간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선택, 책임감, 불안, 진정성, 자유, 힘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문제에 접근한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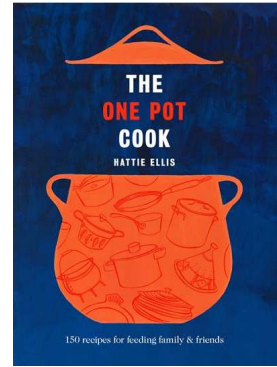
1. 서론
2. 막스 슈티르너 - 이기적인 사랑
3. 쇠렌 키르케고르 - 미학적인 사랑

4. 프리드리히 니체 - 힘있는 사랑
5. 장 폴 사르트르 - 가학적, 피학적 사랑
6. 시몬 드 보부아르 - 진정성 있는 사랑
7. 결론

**<저자 소개>**

스카이 클리어리(Skye Cleary)는 매쿼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마련한 강연 시리즈에 참여하였으며, 뉴욕 인근에서 비정기적으로 모여 사랑과 철학,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맨하탄 러브 살롱 (Manhattan Love Salon)'을 공동 설립했다.

제목 : THE ONE POT COOK  
가제 : 한 솥 요리  
저자 : Hattie Ellis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5년 10월 8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요리



### 불필요한 고생 없이 영양 많고 맛있게 한 솥 가득 만들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150가지 요리

육아나 직장 생활, 집에 있어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몇 시간이나 들여서 요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가 많다. 그것도 매일 먹는 밥상을 다양한 요리로 채우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큰 냄비에 정말 맛있고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요리를 가득 만들어두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양만큼 데워서 먹으면 여러모로 편하지 않을까? 저자는 시골벽적인 남자아이 셋에 야근이 일상인 남편을 잘 챙겨 먹여야 하는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끼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집에서 솥 하나로 '대량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이 책에서 자신이 발견한 비법을 소개한다.

솥 하나 가득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150가지 요리들은 수고스러운 과정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맛은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족의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이고 손님 맞이에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값비싼 조리도구나 장비,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요리들이 소개된다.

저자가 소개하는 쉽고 간단한 요리들로 끼니 때마다 부엌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어느 새 가공 식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되어버린 시대, 화려하고 다채롭지만 저질 요리로 메뉴 판을 가득 채운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시대에 '재대로 먹고 사는 법'을 되살리고 음식에 관한 상식을 새삼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목차>

##### 1. 스프

: 쇠고기 보리 스프 / 옥수수 크랩 차우더 / 자투리 야채로 만든 스프 등 29가지 레시피

##### 2. 간단한 저녁 메뉴

: 세리주와 쌀을 활용한 닭가슴살 요리 / 채소와 버터 수란 / 태국식 커리 등 34가지 레시피

##### 3. 한겨울 속까지 덥혀주는 요리

: 오렌지, 고수로 맛을 낸 쇠고기 요리와 허브 만두 / 치킨 머쉬룸 파이 등 39가지 레시피

4. 여름철 진수성찬

: 달, 병아리콩을 곁들인 그리스식 양고기 요리 / 로스트 치킨 / 허브 오믈렛 등 31가지 레시피

5. 세계 요리 탐험

: 스리랑카식 달걀요리 / 인도네시아식 쇠고기 렌당 / 굴라시 등 40가지 레시피

6. 똑딱 만드는 푸딩

: 꿀, 팔각을 곁들인 자두 푸딩 / 바닐라 자두 푸딩 / 사과 샐러드 등 28가지 레시피

**<저자 소개>**

해티 엘리스(Hattie Ellis)는 음식에 관한 글을 기고하며 'Woman's Hour', 'The Food Programme'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2014년 '안드레 사이먼 음식기고가 상 (Andre Simon foodwriter awards)' 결승 후보에 올랐으며 '음식기고가 협회 상(Guild of Food Writers awards)'를 수상했다.